

미국 무역수지: 7 월 적자 확대는 수출 부진 아닌 IT 자본재 수입 물량 증가가 주도

2026.09.03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한 줄 요약

7 월 무역적자는 헤드라인·물가조정 실질치·3 개월 평균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확대됐고, 그 실체는 컴퓨터·반도체 등 정보기술 자본재 수입이 물량 기준으로 늘어난 것이며, 이는 현재 인플레이 우려가 우세한 국면에서 연방준비제도의 동결·인상 반영 경로를 흔들 재료가 아니다.

미국 7 월 무역적자 886 억 달러로 확대 — 확대를 이끈 것은 수출 부진이 아니라 IT 자본재 수입 물량

미국의 7 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는 886 억 달러로 6 월 712 억 달러 대비 174 억 달러(+24.4%) 확대됐다. 직전 발표 시점에는 단월 적자는 줄었는데 3 개월 평균 적자는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 때문에 확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이번에는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상품적자도 12.7% 늘고 3 개월 이동평균 적자 역시 119 억 달러 확대되면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측정치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더 이상 한 달치 노이즈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확대의 내용을 뜯어보면 수출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수입이 늘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번 적자 확대분 174 억 달러는 사실상 전부 상품수지에서 나왔고, 수입은 명목 기준 +3.9%, 물가 영향을 뺀 실질 기준으로도 +3.8%로 거의 차이가 없어 이번 증가가 가격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들인 물량 자체의 증가임을 보여준다. 그 중심에는 컴퓨터(+69 억 달러), 주변기기(+66 억 달러), 반도체(+12 억 달러) 등 정보기술 관련 자본재가 있다. 반대로 수출 감소분은 원유·비화폐용 금 등 가격에 민감한 품목에 집중돼 있고 자본재·소비재·의약품 수출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미국 수출경쟁력 약화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자본재 급증이 데이터센터·설비투자 등 실수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세를 피하려는 선제적 재고 확보인지는 이번 자료만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정책 영향 측면에서는, 현재처럼 인플레이 우려가 우세하고 정책금리가 3.75%로 유지되며 시장이 인하 가능성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국면에서 이번 수치는 수요 냉각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재 수요가 견조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즉 동결·추가 인상 반영 경로를 약화시키는 재료는 아니다. 다만 수입 명목치와 실질치의 격차가 거의 없어 관세 전가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인상 논거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며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실질 수입이 견조하게 늘어난 이번 결과는 경기 침체 없는 성장 경로를 지지하는 동시에, 시장이 일부 반영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는 방향이 어긋난다.



앞으로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10월 6일 발표될 8월 통계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수입이 이번처럼 유지되는지 아니면 되돌려지는지가 이번 급증이 실수요인지 선제 재고 확보인지를 가를 것이고,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재고투자 지표가 이 수입 증가를 상쇄하는지도 3분기 성장을 판단에 중요하다. 또한 다음 달 수입의 명목·실질 격차가 벌어져 수입단가 상승이 뚜렷해질 경우, 이번 판정은 '인상 논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지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03 (이번)	7 월 미국 무역적자가 886 억 달러로 전월보다 174 억 달러(24.4%) 확대됐다. 확대를 이끈 것은 수출 부진이 아니라 컴퓨터·반도체 등 정보기술 자본재 중심의 수입 물량 증가이며,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앞선 지금 국면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반영 경로를 약화시킬 재료가 아니다.
2026-08-04	6 월 미국 무역적자는 733 억 달러로 전월(776 억 달러) 대비 5.6% 줄었지만, 이 축소를 곧바로 경기 개선 신호로 읽기는 이르다.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드는 가운데 나타난 축소인 데다, 비교 대상인 5 월 수치에도 금(金) 관련 특이 요인이 섞여 있어 그 부분을 걷어내고 봐도 방향이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계절 변동을 걸러낸 3 개월 이동
2026-07-07	5 월 적자 \$77.6bn 은 4 월 대비 +42% 악화로 보이나, 금(-\$6.2bn) 등 일회성 상품 변동과 월간 변동성을 감제하면 구조적 신호는 약함. 반대로 YTD 누적은 여전히 -40.6% 개선 중으로, 월간 편차 내의 등락으로 봐야 함.
2026-06-09	4 월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적자 규모는 여전히 연간 660 억 달러 수준이고 개선폭의 지속성은 명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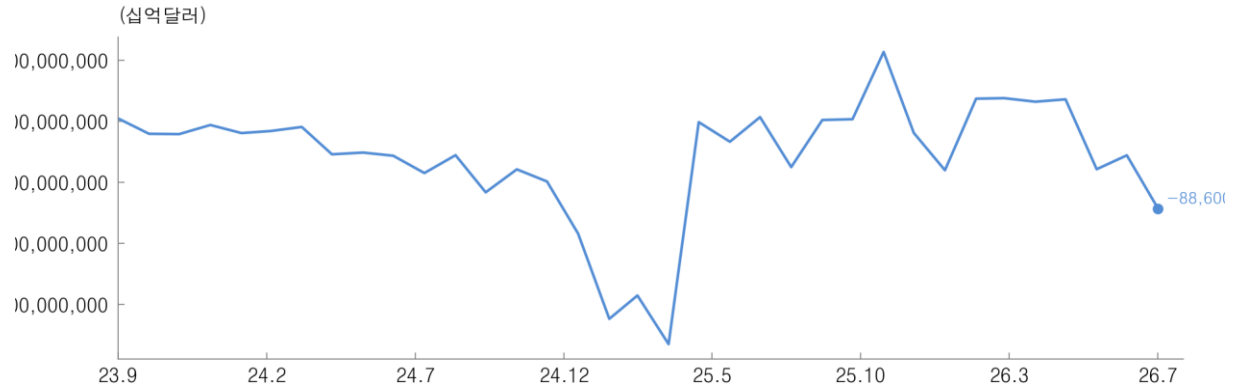
7 월 무역수지 — 수출 부진이 아닌 IT 자본재 수입 물량이 이끈 적자 확대

항목	7 월	전월 대비	맥락
종합 무역적자(국제수지 기준)	886 억 달러	+174 억 달러(+24.4%)	6 월 712 억에서 확대, 헤드라인·실질·3 개월 평균 모두 같은 방향
수출	3,107 억 달러	-66 억 달러(-2.1%)	원유·비화폐용 금 등 원자재 감소가 주도, 자본재·소비재는 증가
수입	3,993 억 달러	+108 억 달러(+2.8%)	IT 자본재 중심의 물량 증가
상품수지 적자	1,196 억 달러	+176 억 달러 확대	이번 적자 확대분의 사실상 전부를 차지
서비스수지 흑자	310 억 달러	+2 억 달러	여행·금융·운송 수출 감소로 사실상 횡보
실질 상품적자(2017 년 달러 기준)	1,064 억 달러	+120 억 달러(+12.7%)	명목 증가율 17.7%보다 낮아 일부는 가격 요인
자본재 수입(컴퓨터+69 억·주변기기+66 억·반도체+12 억)	-	자본재 전체 +144 억 달러	이번 수입 물량 증가의 핵심 동인
3 개월 이동평균 적자	785 억 달러	+119 억 달러	단월 노이즈가 아닌 추세적 확대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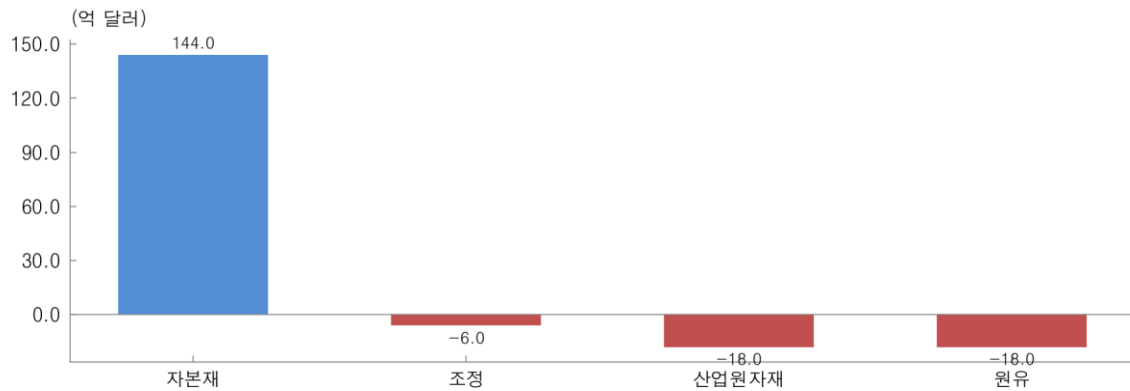
지표	값
수입(\$B)	399.3
수입 전월대비(%)	2.8
무역수지(\$B)	-88.6

미국 무역수지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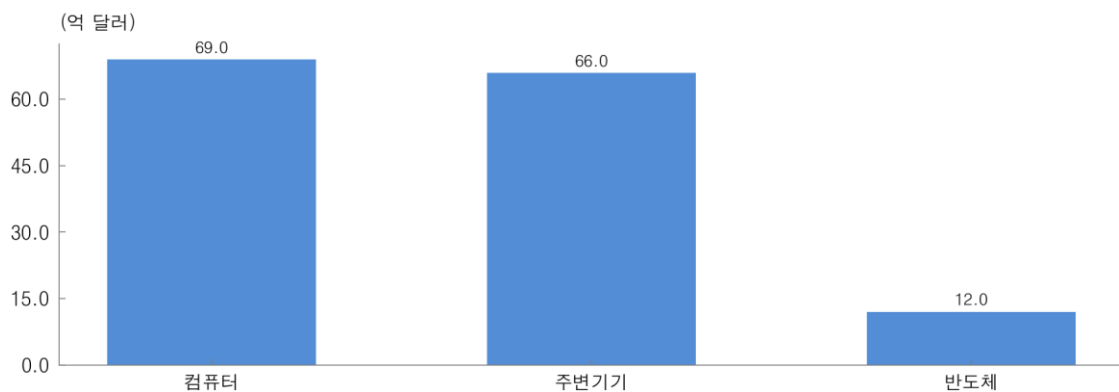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7월 상품수입 순증 120억 달러 요인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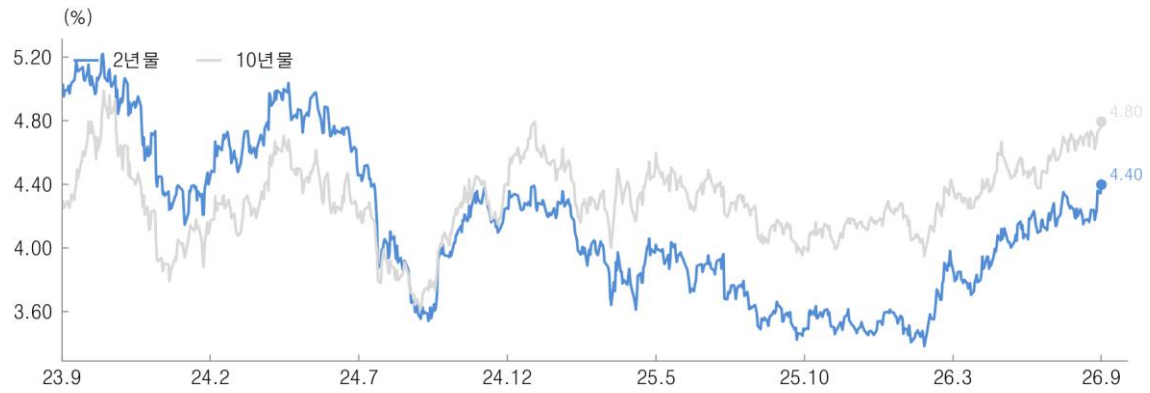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7월 IT 자본재 품목별 수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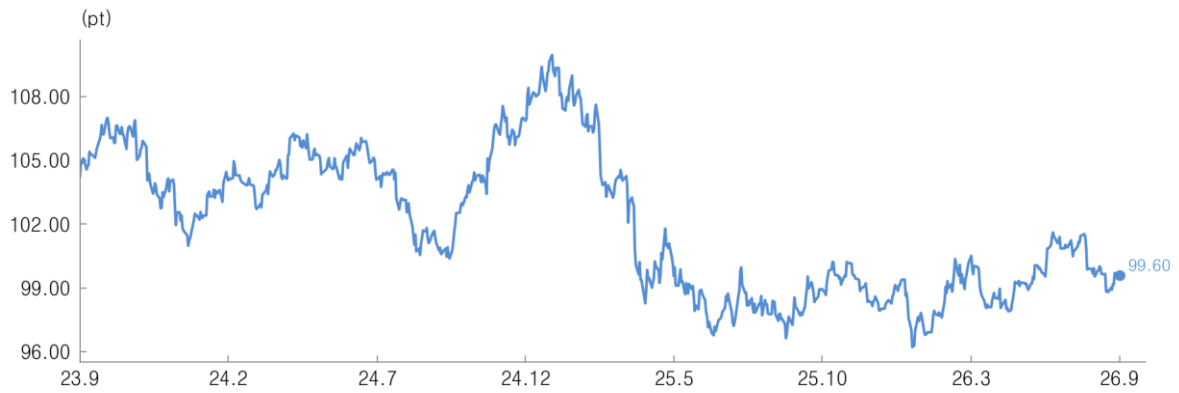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